

내가 부처다, 선영석 남자
라이벌, 양서류계의 갑,
나 오늘 술 안마실꺼야,
3병만 더 마시고. 나 이제
밥 안먹을꺼야, 이것만 먹고.
윤도희 옆구리 손잡이설.



‘일해! 일하라고!’
쉬지말고 일하라고,
코디가 없어도 민드라가
있다. 물 80병 채운다.
형, 냉장고 청소하자고.
형, 형, 형. 형!!!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토마토 2KG론, 당근 2KG론,
난 생당근은 안먹어,
나 바닐라아이스크림 싫어해,
근데 이것만 먹고. 엉덩이가
크고 예쁜 나가툰 뇨자.



보르두보꾸를 아시나요?
그의 취미는 보르두보꾸,
스리랑카 남노소의 사랑을
받는 남자, 특기는 메이크업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



이번 보고처, 질지하다. 질지하니 궁거채.

6월 보고처



Contents

- 6월의 일정
- 주요 활동
- 6월을 정리하며
- 앞으로의 일정



6월의 일정

2013년 6월 첫째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 중간평가단 도착

2013년 6월 둘째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 ▪ 중간평가	3 ▪ 아피스쿨(영어) ▪ 350ppm 캠페인 준비	4 ▪ 350ppm 캠페인 - 인간쓰레기통 ▪ 타밀어 수업 ▪ 아피스쿨(체육)	5 ▪ 아피스쿨(영어) ▪ 350ppm 캠페인 준비	6 ▪ 아피스쿨(체육) ▪ 타밀어수업 ▪ 350ppm 캠페인 준비	7 ▪ 350ppm 캠페인 - 환경퀴즈대회	8 ▪ 유치원 선생님과 티타임

2013년 6월 셋째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9 ▪ 커미티 멤버와 티타임	10	11	12 ▪ 문화탐방 1일차 - 누와라엘리야	13 ▪ 문화탐방 2일차 - 실론티 공장 - 캔디	14 ▪ 문화탐방 3일차 - 담불라 - 시기리야	15 ▪ 문화탐방 4일차 - 폴로나루와

2013년 6월 넷째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6 ▪ 생일파티에 초대받음!	17 ▪ 도서관 정리 ▪ 아피스쿨(영어)	18 ▪ 도서관 정리 ▪ 아피스쿨(체육)	19 ▪ 도서관 정리 ▪ 아피스쿨(영어)	20 ▪ 혈액검사 ▪ 도서관 정리 ▪ 아피스쿨(체육)	21 ▪ 도서관 정리 ▪ 아피스쿨(음악)	22 ▪ 지역축제참여

2013년 6월 다섯째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3/30 ▪ 집에서 휴식!	24 ▪ 350ppm 캠페인 - 분리수거 활동 ▪ 도서관 정리 ▪ 아피스쿨(영어)	25 ▪ 도서관 정리 ▪ 아피스쿨(체육)	26 ▪ 도서관 정리 ▪ 아피스쿨(영어)	27 ▪ 도서관 정리 ▪ 아피스쿨(체육)	28 ▪ 도서관 정리 ▪ 아피스쿨(음악) ▪ 닭집 사장님댁 티타임!	29 ▪ 스카우트 행사



주요활동

- 아띠 스쿨
- 도서관 만들기
- 350ppm 캠페인
- 문화탐방
- 중간 평가
- 캄라팀 이모저모



아띠 스쿨

(Atti – School)

(Atti – School)

아띠스쿨 - 영어

아띠 스쿨 영어반은 수준과 나이에 따라 4개의 반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단원이 각자의 반을 맡아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첫번째 선영석 단원의 반은 영어를 읽고 쓸 줄 아는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초기에는 아무런 교재 없이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과 수업함에 있어 난이도를 조절하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도서관 책 정리를 하다가 고학년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를 발견하고, 교과서 내용을 참고하여 매주 음식, 환경, 교통, 관광 등 다른 주제로 읽기와 쓰기, 문법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과 매 시간마다 영어로 소통하며 함께 스리랑카의 문화를 배우고 있는 중이다.

두번째, 김나래 단원의 반은 알파벳을 읽고 쓸 줄 알고 쉬운 단어를 말할 수는 있지만, 쓰고 읽는데는 어려움을 느끼는 상급반 아이들이 대상이다.

날씨, 기분, 음식, 장소에 대한 단어들을 배우고 쓰는 것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처음에는 외국인에 대한 관심으로 많은 아이들이 왔다가 가기도 했지만, 지금은 상거위, 살룩사, 데누시카, 소비까, 삭시카 5명의 고정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있다. 티쳐~라고 부르며 달려오는 귀여운 학생들 덕분에 매일 수업이 즐겁다!



아피스쿨 - 영어



세번째, 민광필 단원의 반은 ABC를 기본으로 하는 기초단어 반을 맡고 있다. Apple, Book, Cow 같은 기초 단어들을 하루에 4~5개씩 읽고 쓰며 반복 수업을 하고 있다. 설명하기 어렵거나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은 직접 그림 카드를 만들어 그림과 타밀어로 쓴 영어발음을 함께 보여주며 이해도를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 아쉽게도 처음 아피스쿨을 시작할 때보다는 인원이 많이 줄어 든 상태지만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어서, 처음 시작보다 지금 서로의 만족도가 큰 것 같다.

네번째 윤도희 단원은 ABCD반을 맡고 있다. 이 수업을 듣는 아이들은 주로 1학년, 2학년 아이들로 이루어져있다. ABCD반의 목표는 알파벳 소문자, 대문자 익히기! 수업은 '알파벳송'으로 힘차게 시작해서 아이들 몸이 베베 꼬이고 자꾸 물을 마시고 싶게 만드는 소문자, 대문자 다섯 번 쓰기로 이어진다. 쓰기 시간에는 다들 진지한 표정으로 미간에 주름까지 만들며 열심히 알파벳을 그린다. 그러나 비록 그럴지언정 이젠 제법 소문자 대문자도 구분할 수 있고,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비록 T를 찾으려면 알파벳 송을 처음부터 불러야 하는 긴 여정이 필요하다. 여기선 기다려주는 것이 센스) 외국인 신드롬이 끝난 6월부터 ABCD반은 사독센, 니락샤나, 비두센, 니케시칼, 레한, 다누시아, 카산드라로 고정되어 알파벳 마스터를 향해 달리고 있다.



아피스쿨 - 체육



나이, 성별 불문하고 가장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는 아피스쿨의 꽃, 체육!

지난 달에는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 태권도의 기본 동작(지르기과 발차기등)을 가르쳤고, 이번달은 강남스타일 태권무를 가르치고 있다.

체육수업은 너무 많은 아이들이 수업들 듣고 싶어했지만,비좁은 공간의 문제때문에 많은 인원이 함께 수업을 할 수 없어서 14세 이상반과 14세 이하반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하고있다. 또한, 7세 이하의 아이들은 태권무의 동작을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7세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태권무가 아닌 줄넘기나 달리기등 단체로 할 수 있는 체육수업을 따로 진행하고 있다.

아띠스쿨 - 체육



학사 태권도 관장님, 감사합니다!

태권도수업을 듣는 아이들에게 유니폼이 있으면 좋겠다는 현지기관의 피드백을 받아, 울산YMCA에 아띠스쿨 아이들을 위한 태권도복을 보내 줄 수 있는지 여쭙봤다. 울산YMCA에서는 울산 지역의 태권도장에 연락을 하여서, 아이들이 안 쓰는 태권도복을 회수하였고 총 20벌에 달하는 옷들을 회수하였다.

국내훈련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강남스타일’ 태권무를 가르쳐주셨던) 학사태권도 관장님이 큰 도움을 주셨다. 아이들에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 태권도복을 나누어 줄 수 있을지 현재 고민 중에 있다.



아티스쿨 - 음악



도레미송을 통한 아티스쿨의 음악시간.

처음에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음계를 통해 노래를 가르치다가, 아이들이 음에 익숙해지자 이제 가사와 함께 노래를 가르치고 있다. 영어가사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위해, 영어가사의 발음을 타밀어로 써서 붙여놓고 수업을 하고 있다. 학교에 음악수업이 없는 아이들은, 이 시간만큼은 목청높게 노래 부르느라 다들 신나하는 분위기이다.

6월의 아피스쿨



아피 스쿨을 시작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지역 주민들을 만나기 위한 도구정도로 생각했던 아피스쿨은,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었다. 아피스쿨을 처음 시작할 때는 국제개발협력의 일환으로서 단지 라온아피 단원과 칼라의 아이들이 만난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 이걸 라온아피 단원과 칼라의 아이들이 만나는 활동이 아니라 윤도희와 리게시카가, 선영석과 미백이, 김나래와 소비카가, 민광필과 피라티파가 만나는 시간이었다. 힘든 생활과 활동속에서도 단원들 모두에게 아이들을 만나는 이 시간은 정말 힘이 되는 시간이다.

요즘들어 아피 스쿨 아이들은 우리에게 언제 떠날 것인지, 우리가 떠나면 아피 스쿨도 끝나는 것인지에 대해 묻곤 한다. 우리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8월과 9월은 방학식이며 우리는 가겠지만 10월에는 더 좋은 사람들과 더 좋은 아피 스쿨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한다. 우리의 만남과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오래도록 아피 스쿨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사람’을 모으고 지역문화공간을 창출해 낸다

도서관 만들기

도서관 만들기 - 책 커버 싸기



도서관 만들기작업의 일환으로 오랜 시간동안 방치된 책이 더 이상 상하지 않도록 책 커버를 싸기로 했다. 칼라는 한국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편리한 도구들이 부족하며 질이 다르다. 책을 싸는 페이퍼를 예로 들면 미터 단위로 팔아 30m의 오일 페이퍼를 일일이 책 크기에 맞춰 잘라야 했다. 재질도 얇은 비닐로 되어 있어 다루기가 어렵다. 이에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역할을 나누었다. 나래 단원은 오일 페이퍼를 싸기 좋은 크기로 자르기, 광필 단원은 적당한 크기로 테잎 자르기, 도희 단원은 책에 오일페이퍼 고정하기, 영석 단원은 책 커버 마무리 작업을 하기로 했다.

단원들은 오일페이퍼 자르기, 테잎 자르기등 각자의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전문가로 발돋움 했다. 각자의 역할에 익숙해 지면서 스피드가 붙어 애초의 계획과 다르게 열흘만에 도서관 책 커버링 작업을 마쳤다.



350ppm 캠페인

인간쓰레기통 & 환경퀴즈대회

350ppm 캠페인 ————— 개 관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라온아띠 8개국 연대활동으로 350ppm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 스리랑카 칼라팀은 350ppm 캠페인 활동으로 인간쓰레기통, 탄원편지, 환경퀴즈대회, 식물 나눠주기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 그러나, 준비과정에서 예산문제와 활동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인간쓰레기통과 환경퀴즈대회로 350ppm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다.

350ppm 캠페인 — 인간쓰레기통



- 날짜 : 6월 4일 (화요일)
- 보여주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라온아띠 단원들은 350ppm 이 무엇인지, 어떻게 재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밀어 안내판을 만들었다. 이와 함께 4개의 쓰레기통(종이, 캔, 유리, 플라스틱)을 들고 다니며 사람들의 재활용에 대한 참여를 유도했다.
- 유스멤버와 함께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를 선정하여 길 거리를 돌며 우리 스스로도 쓰레기를 주워 분리수거를 하고, 이 모습을 본 지역 주민들에게도 참여를 유도하였다.

350ppm 캠페인 — 인간쓰레기통



[오전 시간]

- 오전시간(7:00~7:30)에는 아이들의 등교시간으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곳길을 캠페인장소로 선택하였다. 지나다니며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안내판을 보여주며 설명을 하고 분리수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인근 학교 교장선생님의 도움으로 수업시간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학생들에게 350ppm이 무엇인지, 분리수거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학생들에게 직접 쓰레기를 받아 분리수거하도록 하였고, 아피스쿨 아이들이 많아 더욱 많은 아이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었다.

[오후 시간]

- 태권도 수업이 끝난 직후 (5:00~5:30) 아피스쿨 아이들에게 함께 캠페인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시간은 많은 아이들이 튜이션클래스(개인 과외 개념)를 가는 시간이기에 역시 유동인구가 많다. 아이들과 함께 CO2줄이기를 외치며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다시금 유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350ppm 캠페인 — 환경퀴즈대회



[개요]

세계 환경의 날에 맞춰 350ppm과 기후변화등에 대하여 아피스쿨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예정대로 진행하려 했던 날, 예상치 못하게 하루 종일 정전이 나는 사태가 발생 하여 무리라는 판단이 되었고, 결국 다른 날로 미뤄지게 되었다. 첫 날에 비해 훨씬 적은 수의 아이들이 모여 조금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함께 해 준 아이들이 있었기에 기쁜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다.

1) 강의 : 우선적으로 아이들에게 **350ppm**과 **CO2**가 무엇이고 왜 문제이며, 현재 지구상에 이러한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려주었다. PPT를 준비하여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그림과 사진, 쉬운 용어들을 넣어 아이들과 함께 나눠보았다.

* 콘텐츠 : **350ppm**과 관련하여 기후변화, 온난화 현상, 자연재해 등에 관한 이야기,
매일 실천 할 수 있는 것들 (물, 전기 아끼기, 나무심기 등등), 350ppm 동영상

350ppm 캠페인 — 환경퀴즈대회



- 큰 지구모양의 보드판을 만든후, 그 위에 인간쓰레기통 활동으로 수거한 쓰레기들을 부착했다. 퀴즈대회에서 학생들이 지구모형 위에 붙어있는 쓰레기를 분리수거 보드판에 붙이도록 했다. 지구판 위에 붙은 쓰레기를 분리수거 보드판에 옮겨 붙이면 깨끗한 지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인식개선에 노력하였다.

350ppm 캠페인 — 환경퀴즈대회



- 칼라에서 쓰레기 차는 일주일에 한번 마을을 방문하며 그 이외의 쓰레기를 모두 태우거나 매립시킨다. 분리수거의 개념이 생소했던 아이들은 재미있게 환경퀴즈대회에 참여했다.

350ppm 캠페인 — 환경그리기



환경 교육과 퀴즈에 참여한 친구들과 함께 350ppm을 의미하는, '350'이 인쇄된 종이에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며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아이들이 환경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주었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냈다. 고학년의 아이들도 진지하게 활동에 참여해주어서 고맙다.





A large group of approximately 25 children and young adults are posing for a group photo outdoors in front of a light-colored building. They are arranged in several rows, with some sitting on the ground and others standing. Most of them are holding up hand-drawn signs that feature the number '350' in various colors and styles. The signs are decorated with drawings of trees, flowers, and other environmental motifs. The children are dressed in casual clothing, including t-shirts, polo shirts, and shorts. The building behind them has a sign that reads 'ESTD : 14TH APRIL 1980'. A red bicycle is visible on the left side of the frame. The overall atmosphere is cheerful and celebratory.

350ppm 캠페인 — 활동 이후



[활동 이후]

- 활동이 끝난 이후,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칼라YMCA에 쓰레기통을 비치하기로 하였다. 칼라YMCA에는 프리스쿨도 있고 우리 아피스쿨도 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에게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 기대한다.
- 현재, YMCA를 방문하는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분리수거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쓰레기통이 차면 아이들과 함께 칼라 분리수거장에 버리고 온다.

[소감]

- 아피스쿨 아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이번 활동이 꽤나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이들의 참여를 유도했을 뿐,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 현재 우리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참여하고 쓰레기를 비움에 있어서 처리가 가능하지만, 우리가 떠난 이후 과연 칼라YMCA에서 어떻게 쓰레기통을 관리할 지 지속적으로 토의중에 있다.





문화 탐방

스리랑카의 역사와 문화

문화탐방 —— ① 누와라엘리아



- 스리랑카, 더운 줄만 알았나요? 적도의 나라에서 맞은 강추위!
- 칼라는 40°C 누와라엘리아는 12°C! 같은 시간 다른 온도에 단원들은 오들오들
- 폭우와 강풍 속에서도 아름다운 하칼라 가든의 꽃과 나무들!
- 스리랑카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만드는 홍차 - 실론티의 나라 필수 코스 '차 공장' 견학



문화탐방 —— ② 캔디



- 스리랑카 제2의 도시, 캔디에서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인 페라데니야 가든에서 좌절을 느끼다.
- 다라다말리가와, 불교국가 스리랑카의 웅장한 불교문화를 엿보다.



문화탐방 —— ③ 담불라 & 시기리야



- 불교 유적도시 담불라에서 찬란한 불교예술을 만나다.
- 세계문화유산, 8대 불가사의 시기리야에서 하늘과 마주하다.



문화탐방 —— ④ 폴로나루와



- 고대 유적도시, 세계문화유산 폴로나루와에서
스리랑카 고대 왕조의 숨결을 느끼다.
- 스리랑카의 오랜 역사의 발자취를 거닐다.





중간평가

지난 3개월을 되돌아보며

중간평가



한국YMCA전국연맹 정동민 간사와 스리랑카팀의 지역훈련을 맡았던 울산 YMCA 주은지 간사가 6월1일부터 3일까지 칼라에 방문하였다. 머무는 이틀동안 밤새 단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단원들이 활동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 공식적으로 중간 평가단, 현지기관과 함께 현재까지 이루어진 활동들을 평가하고, 더 나은 활동을 위해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 중간평가단과 현지기관문제를 논의하였고 주요활동에 대한 지원을 약속 받았다.
- 그러나 중간 평가 일정이 주말에 끼었어서 중간평가단이 우리가 활동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없어서 아쉬웠다.



중간평가



- 칼라에 파견된 첫 기수여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현지 기관과 활동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다.
- 이로 인해 단원들은 활동 보다는 현지 기관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피로하고 지쳐있던 상태였다.
- 이야기(상담) 할 대상도 없이 고립됐다고 느낄 때, 중간 평가단이 방문하였다. 중간 평가단은 밤새 단원들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 주었다. 힘들었던 것을 이야기 한 것 만으로도 단원들은 다시 활동에 대한 의지를 갖을 수 있었다.
- 오랜시간 지루했던 중간 평가에 지친 간사님들을 위해 우리의 자랑! 아름다운 칼라의 바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힌두=타밀’인 칼라에서 힌두 사원은 꼭 한 번 보여 드리고 싶었던 곳이다.
- 칼라를 방문한 간사님들에게 마을자랑에 신난 단원들은 더 많은 곳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을 아쉬워 했다.

중간평가



- 중간 평가단의 영향
 - 합의된 예산에 대한 집행
 - 유명무실한 커미티의 역할 축소
 - 중점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컬라에서 살아가기

- 이웃들과 티타임
- 생일파티 초대
- 혈액검사
- 스네이크 댄싱 페스티벌
- 스카우트 행사

이웃들과 티타임

• 칼라에서 생활한지 4개월 차. 다양한 경로로 관계 맺은 지역주민들의 가정에 초대받아 함께 차를 마시며 정답게 이야기 하며 외국인이 아닌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칼라팀입니다.

• 스리랑카에서는 식사시간 외에 중간중간 다과 시간을 통해 여유를 즐기며, 가족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집니다.
• 단원들도 함께 차를 마시며 그 동안 배운 타밀어로 부족하지만 안부도 묻고, 경쾌한 음악에 함께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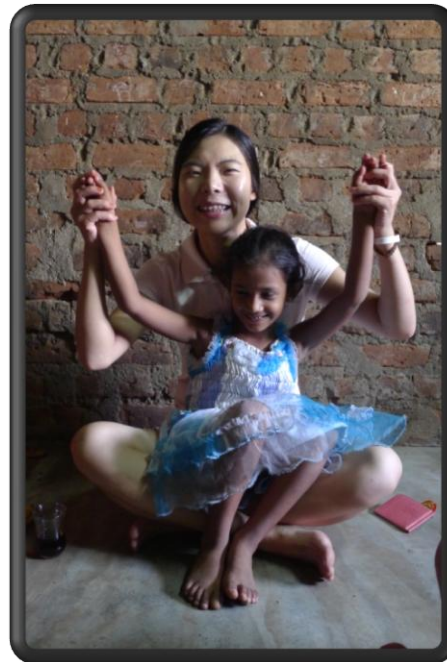


생일파티 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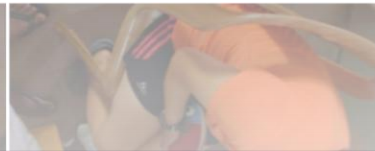


- 아피스쿨에 다니고 있는 신두센이라는 친구가 생일파티에 초대했습니다. 생일은 1년에 한번 있는 소중한 날이기 때문에, 단원들은 코디네이터와 협의를 통해 신두센의 생일파티에 기쁜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 생일파티의 의미도 있었지만, 아피스쿨의 학생으로서 신두센의 가정을 방문하여 부모님과 인사하고, 대화도 나누며 아피스쿨의 방향에 대해 조언을 받는 자리기도 하였습니다.

- 신두센은 두명의 여동생이 있는 듄직한 오빠로서, 12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더욱 의젓한 모습으로 단원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 스리랑카에서는 생일을 맞이한 사람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직접 선물을 나누며 생일을 기념합니다.
- 한국에서는 생일이 되면 무언가 받고자 하는 모습들을 떠올리며 나눔의 문화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혈액검사



- 처음에는 모기인 줄 알았는데 단원들 모두 온몸에 이상한 반점이 돌아나고 가려움이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코디네이터의 조언에 따라 단원들 모두 병원에 찾아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혈액검사를 받았습니다.
- 다행히도 혈액검사결과 큰 문제는 없고, 가려움과 반점은 더운 날씨와 먼지로 인한 알러지로 추정되었어요. 그래서 다같이 알러지 주사를 맞았습니다.
- 주사를 맞고 나서, 가려움이 나아져서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D

스네이크 댄싱 페스티벌



- 칼라에서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렵다고 생각할 즈음, 바닷가에 위치한 힌두사원에서 스네이크 댄싱 페스티벌을 개최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 처음에는 작은 축제일거라 생각하고, 산책할 겸 가보았으나, 예상보다 큰 축제였습니다. 평소에는 인사만 하던 조용한 청년들과 함께 흥겨운 음악에 맞추어 신나는 댄스를 추며 밤도 잊은 채 불타는 토요일을 보냈답니다.

스카우트 행사



- 4월, 칼무네YMCA에서 만났던 무슬림지도자 무스타파씨께서 스카우트 행사에 YMCA멤버로서 라온아띠 단원들을 초대하셨습니다.
- 스카우트의 1박2일 캠프행사는 인근지역 스카우트 단원들 약 250여명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큰 행사였습니다. 저희는 행사 개막식에 참여하여서 스카우트 친구들이 준비한 다양한 공연도 보고, 단원들도 YMCA의 일원으로서 강남스타일 태권무를 준비해가 공연을 하였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익숙한 '강남스타일'노래와 춤에 큰 호응을 보내주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 아피스쿨(After School)(진행중)

- 과목 / 시간 : 영어(월, 수), 체육(화, 목), 음악(금) / 오후 3:00 ~ 5:00 (공부방 운영 : 3:00 ~ 4:00)
- 방학식(7월 29일) : 10기가 올 때까지 방학기간으로 지속적인 아피스쿨의 운영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

○ 도서관 만들기(진행중)

- 도서관 정리(페인트, 색인 만들기, 전등달기)
- 도서관을 지역거점이자, 아이들의 문화공간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

○ 어촌 체험

- 칼라지역의 주요 기반산업인 어업에 종사하는 지역주민들과 관계맺기
- 다양한 채집활동을 통한 칼라지역의 산업활동 이해(민물고기, 바닷고기)

○ 문화탐방

- 7월 23일~26일 : 북부지역 문화탐방 (재프나, 킬리노치 등)
- LTTE의 근거지였던 북부지역에서 내전 이후 재통합 과정에 대한 이해

○ Poya-day 환경축제

- 350ppm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월례행사로서 환경영화제 개최 예정
- 7월 22일(월), 오후 3:00 ~ 5:00 / 칼라 YMCA 강당과 해변

○ 모라투와 YMCA & 마타라 YMCA 방문

- 8기까지 활동지역 이었던 모라투와 YMCA를 방문하여 라온아피 활동 종료이후 지역의 지속가능성 발견
- 한국어 교사로 활동 중인 선배기수들의 활동지인 마타라 YMCA에서 다른 형태의 국제자원활동의 이해



6월을 정리하며

6월 초는, 두 달 반 가량 계속되던 코디네이터의 문제와 활동예산에 관련된 문제로 팀 전체적으로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중간 평가단의 방문은 지쳐있던 팀원들에게 다시 한번 활동에 대한 의지와 열정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간 평가단은 현지 결정기관인 Kallar YMCA, NCY-SL과 활동과 활동예산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를 가졌고, 합의된 예산에 대한 집행과 중점적인 활동에 대한 지지를 약속 받았습니다. 이후, 2주 동안 그동안 계속 되어왔던 예산과 일정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거쳤고, 지금은 예산과 일정문제로 활동하는 데 지장을 받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생활면에서는 단수와 단전, 그리고 40도를 육박하는 더위가 계속되던 한달이었습니다. 그래도 생활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기대감도 갖지 않고, 비워냈더니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크게 힘들지 않았던 6월 한 달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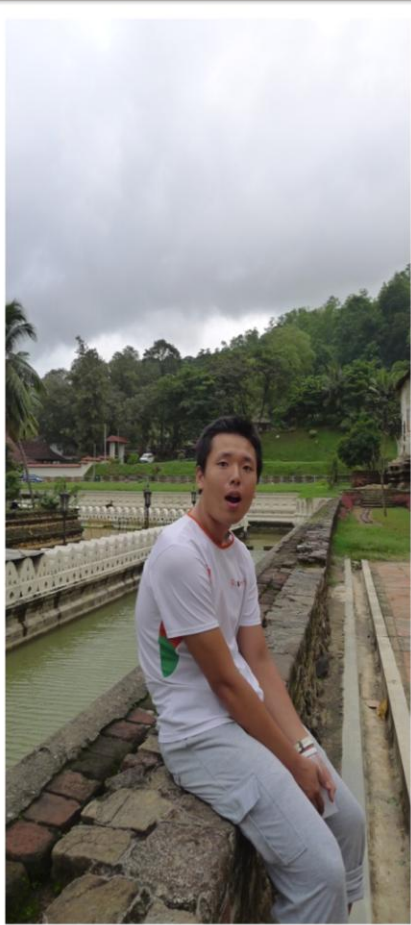
또한, 스리랑카에서 국내의 좋지 않는 정치 소식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단원들 모두 착잡했던 한달 이었습니다.

어느덧 라온아띠 9기로서의 활동이 막바지로 이어지면서 그런지 바람결에 펄럭이는 야자나무이며, 아침에 다정하게 산책하는 종달새 부부의 모습과 같은 사소했던 풍경 하나하나가 마음에 밟힙니다. 이제 남은 한 달, 하고자 하는 활동에 함께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부 록

투표 : 댓글 달아주세요 (성별 무관)

내가 제일 잘 나가, 칼라의 얼굴을 찾아라



기호1.
면광패



기호2.
김꼬두



기호3.
선애솔



기호4.
윤미역



끝나지 않을 이야기,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D